인천교육
학생 성공 시대 개막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일보

1988년 8월 8일 창간 제9693호 안내 031-250-3333 kyeonggi.com 음력 7월 20일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The Good Developer GH

尹정부, 경기·인천에 5년간 108만호 짓는다

모처럼 '파란 하늘' 비구름이 물러가고 모처럼 청명한 날씨가 찾아온 16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시가지와 파란 하늘이 가슴이 트일 듯 시원스레 펼쳐져 있다. 김시범기자

전국 270만호 공급… 철도역 인근 부지 개발밀도 높여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지구 '콤팩트시티' 콘셉트 적용

8·16 주거안정 대책

앞으로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초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등을 통해 경기·인천 지역에 주택 108만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해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힘을 합쳐 10월부터 정비사업 수요 조사 및 컨설팅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른바 '8·16 대책'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계획으로,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도권은 경기·인천 108만호를 포함해 총 158만호다.

전체적인 방점은 무주택 서민 등의 내 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자는 데 찍혀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기반 회복을 위해 서울 10만호, 경기·인천 4만호 등 전국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정부는 10월부터 수도권·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 LH 등을 통해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빠른 사업 시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 확보 차원에서 내년까지 1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철도역 인근 부지는 개발밀도를 높여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콤팩트시티' 콘셉트를 적용해 개발할 계획이다.

이때 대상은 기존 3기 신도시 중 GTX가 정차하는 곳으로,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지구가 해당된다. 이들 지구에서 시범적용을 추진한 후 10월부터 추가 택지 후보지가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아울러 성남 분당·고양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 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관련기사 3면

개발 발목 잡는… 수도권 규제 해소 '속도전'

道, 규제혁신TF 구성
상수원·자연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해소 기대감

경기도가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혁신TF를 꾸리면서 수십년간 해묵은 수도권규제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간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전 지역이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 설립 등 개발이 제한받아 왔다.

특히 경기동북부 지역은 이 외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중첩 규제로 번번이 발목을 잡혔다.

일례로 양평군은 남한강과 팔당댐으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 등 갖가지 중첩 규제로 공장 건설이 제한되다 보니 되려 소규모 난개발을 부추겨 환경관리 비용만 늘어나고 있다.

인근 하남시의 상황도 비슷하다. 한강을 낀 탓에 그린벨트 관리특별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대학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육환경의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거센 실정이다.

이에 도가 규제혁신TF를 구성해 경기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선 시군에선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규제혁신 신문고, 시·군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도내 31개 시·군 대상 '2022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를 진행해 총 78건의 규제를 발굴한 바 있다.

간담회에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규제개선 ▲긴급생계비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복지급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선 ▲농기계 임대 지역규제 개선 등이 건의됐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수도권규제 해소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며 "이번 규제혁신TF를 통해 지역의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답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인사 구성은 완성돼 출범을 앞둔 상황"이라며 "규제혁신TF가 발굴한 규제는 자체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 등으로 신속한 규제해소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관련기사 3면

도의회 국힘 '곽미숙 대표 재신임안' 제출

초·재선 구성 '정상화 추진단'
"의장선거 패배 책임, 물러나야"
사퇴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도

경기도의회 의장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도 패배한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국민의힘 정상화 추진단'이 곽미숙 대표(고양6)에 대한 재신임 안건을 대표단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초·재선 의원 45명으로 구성된 정상화 추진단은 16일 자당 대표의원실을 찾아 '곽 대표 재신임 안건 상정 요구서'를 냈다. 이 안건에는 오는 1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곽 대표에 대한 재신임 안건을 상정해 심의 및 의결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상화 추진단에서 단장을 맡고 있는 방성환 의원(성남5)은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것과 관련해 곽 대표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곽 대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이 의총에서 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재신임 안건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상화 추진단 차원에서 또 다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대표에 대한 재신임 안건을 제출한 정상화 추진단은 이날 도의회 청사 1층에서 곽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상화 추진단 소속 의원들이 1시간씩 돌아가면서 곽 대표를 지적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곳에서 만난 정상화 추진단 소속의 한 의원은 "곽 대표가 초·재선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의장 선거에서 패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1대 도의회의 여야 의석수가 78 대 78로 동률인 가운데 지난 9일 진행된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의원(부천1)이 김규창 의원(여주2)을 누르고 의장으로 선출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투표 결과가 같을 경우 연장자인 김규창 의원이 당선되는 상황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83표 대 71표라는 최종 결과에 따라 염종현 의원이 도의회 의사봉의 주인이 됐다. 임태환기자

함께하면 든든 혼자하면 힘든 육아
· 인구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 운영
· 임신·출산·육아 교육 프로그램, 자조모임
· 수유실 설치지원, 임산부 배려 캠페인
심의필번호 제220404-중-137437호
가족의 건강을 우선하는 가족보건의원
· (내과, 산부인과) 각종 예방접종, 진단서, 항체검사
· 공단검진, 채용검진, 보건증, 초음파, 위·대장 내시경
인구보건복지협회 | 경기도지회 가족보건의원
문의_031)256-4644~5
http://www.ppfk.or.kr